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사인(主要死因)에 대하여

- 1994년도 주요사인 구조를 중심으로 -

유동준/경희대 교수, 한국성인병예방협회 부회장

서언

지난해 말경 정부(통계청)이 발표한 '94년도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순환기계질환이 29.9%로 1위, 각종 암이 21.3%로 2위, 각종 사고사망이 13.9%로 제3위를 차지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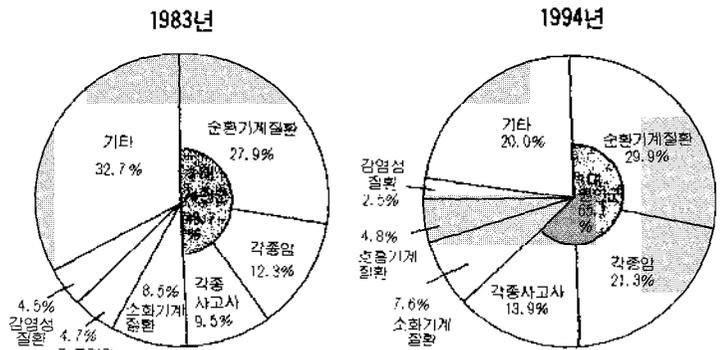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20~30년전 까지만 해도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등을 위시한 급성감염성질환이 주요死因을 차지하던 양상과는 매우 판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망원인 및 질병양태의 변화는 변천하는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적절한 질병관리와 건강증진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94년도 사인구조

1994년 총 신고사망자 239,523명 중 사인분류 가능한 230,677건의 사인구조를 보면, 순환기계질환이 29.9%, 癌이 21.3%, 각종 事故로 인한 사망이 13.9%를 차지하여 이 3大 死因群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83년의 사인구조(순환기



〈그림 1〉 최근 11년간 사인 구조 비교

질환 27.9%, 암 12.3%, 각종 사고사 9.5%)와 비교해 보면, 그중에서도 특히 암과 사고로 인한 사망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조〉

'94년 신고된 사망자수를 총인구 대비(사망률)로 보면, 총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538.8명인데; 남자는 609.4명, 여자는 467.3명으로 남자의 사망률이 훨씬 높다.

사망원인별로는 순환기 질환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인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망률 性比가 3배이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死因은 다음과 같았다.

- (1) 식도암
남자 5.5; 여자 0.8
- (2) 만성간장병(간경변포함)
남자 43.7; 여자 10.0
- (3) 불의의 溺死
남자 8.8; 여자 2.1
- (4) 간 암
남자 35.4; 여자 11.2
- (5) 불의의 墜落
남자 7.8; 여자 2.6 (표 1. 참조)

사인 순위

우리나라 사망자의 사인순위를 질환별로 보면 각종 암으로 인한 사망이 114.5(인구 10만명당)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뇌혈관질환

(85.8), 각종 불의의 사고(62.2), 심장병(44.7), 만성간장병(27.0) 등의 순이었다.

남녀별로 보면; 남자는 암, 불의의 사고, 뇌혈관질환, 심장병, 만성간장병의 순이고, 여자는 뇌혈관질환, 암, 심장병, 불의의 사고, 고혈압성 질환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0세를 제외한 1세부터 30대까지에서 가장 높은

사인을 「불의의 사고」로 나타나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은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40대, 50대, 60대에서의 사인 순위의 1위는 癌으로서, 이는 40대 이후에서는 암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70대 이후부터는 뇌졸중, 즉 뇌

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았다.

주요사인의 사망률 변화추이

최근 10년간의 주요사인의 사망률의 변화추이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되겠다.

I. 계속 증가추세의 사인

(1) 폐암; 계속 증가하며 그 속도가 매우 빨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 당뇨병; 3배 정도 증가하였다.

(3) 허혈성 심질환;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사인으로 약 13배의 증가를 보였다.

(4) 대장암; 사망수는 많지 않으나 그간 현저하게 증가하여 약 2.5배의 증가를 보였다.

위의 사인들은 평균수명이 높은 선진국에선 매우 비중이 높은 死因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흡연, 스트레스, 공해, 육류 섭취 등의 증가로 앞으로 더욱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증가하다가 정체상태인 사인

(1) 위암; '80년대 초반까진 약간의 증가세였으나, '85년을 고비로 미미하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기건강진단의 확대와 위내시경 등의 발달로 조기진단이 가능해져서 암중에서는 5년 생존률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겠다. 그러나 사망률 수준 자체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표 1〉 1994년 성·사인별 사망률 및 사망률성비

사망원인	계	남자	여자	성비
총 사망	538.8	609.4	467.3	130.4
감염성질환	13.3	18.0	8.5	211.8
(결핵)	9.6	13.8	5.3	260.4
악성신생물	114.5	146.1	82.5	177.1
(식도암)	3.1	5.5	0.8	687.5
(위암)	29.3	37.0	21.5	172.1
(대장암)	5.7	5.8	5.6	103.6
(간암)	23.4	35.4	11.2	316.1
(폐암)	19.1	28.4	9.7	292.8
(자궁암)	7.0	-	7.0	-
(유방암)	3.9	-	3.9	-
당뇨병	17.2	17.8	16.7	106.6
순환기계질환	161.0	154.5	167.6	92.2
(고혈압성질환)	26.2	24.2	28.4	85.2
(뇌혈관질환)	85.8	81.5	90.2	90.4
(허혈성심질환)	12.8	15.6	9.9	157.6
(기타심장병)	31.9	29.0	34.9	83.1
호흡기계질환	26.1	29.3	22.9	127.9
(폐렴)	4.7	5.2	4.1	126.8
소화기계질환	41.1	59.4	22.5	264.0
(만성간질환및경변증)	27.0	43.7	10.0	437.0
손상 및 중독	74.8	109.5	39.5	277.2
(교통사고)	35.9	52.8	18.6	283.9
(불의의추락)	5.2	7.8	2.6	300.0
(불의의의사)	5.5	8.8	2.1	419.0
(자살)	9.8	13.3	6.4	207.8
(타살)	1.7	2.2	1.2	183.3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임)

(2) 간암: '9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24.1로 증가한 후 정체상태인 간암은 B형 간염백신 접종확대와 신생아 예방접종의 의무화로 장래에는 사망률이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성간장병과 관련된 간경변 및 간암의 사망률은 그 수준자체가 외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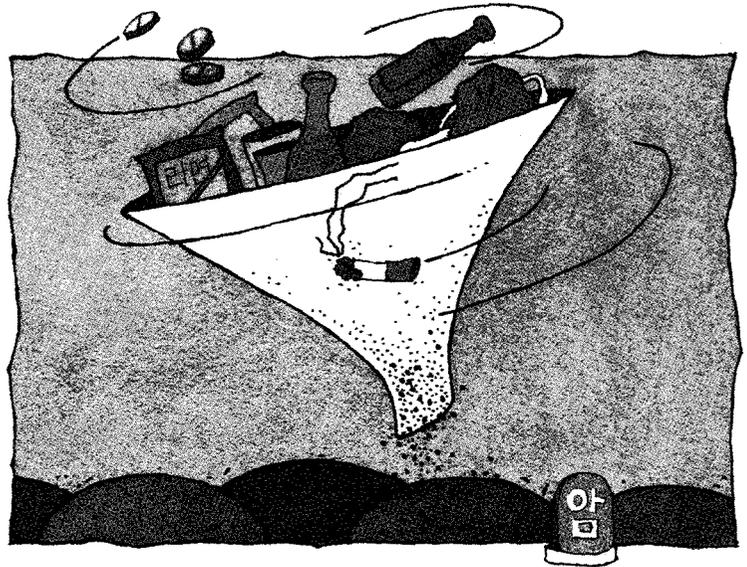
(3) 교통사고; 인구 10만명당 '90년엔 39.7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91년부터 사망률이 약간씩 감소하여 '93년엔 33.5로 되었다가 '94년엔 35.9로 다시 증가하였다.

Ⅲ. 감소추세의 사인

(1) 결핵; 후진국형 사인인 결핵은 이제 인구 10만명당 '94년엔 9.6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속도가 매우 완만하여, 사망률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2) 폐렴; 영유아 사망과 노인층의 주요사인이 되는 폐렴은 영아 사망률이 급격히 저하됨과 함께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나('94년 4.7), 인구의 노령화로 장래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고혈압질환; 고혈압은 '85년에는 인구 10만명당 48.2에서 '94년에는 26.2로 그 사망률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과거에 비하여 고혈압을 방치하지 않고 관리를 하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그 사인이 전환되는 현상과, 또한 의사들의 사인(병명) 기재 방법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러스트레이션 / 이정화

주요사인의 추이를 보면 과거에 위세를 떨치던 전염성질환(결핵포함)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비전염성의 만성퇴행성질환인 소위 '성인병'으로 불리는 순환기질환과 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결언

1980년대 이후 순환기질환이 현저히 수위권으로 부상하고, 악성신생물(암)은 그간 계속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은 '80년대 중반부터 현저히 증가하여, 1994년도에는 순환기질환, 암 및 사고의 순으로 이들 3大死因이

전체 사망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남녀별 주요사인의 변동을 보면, 남자에서는 암, 사고, 뇌혈관질환, 심장병, 만성간장병의 순이고, 여자에서는 뇌혈관질환, 암, 심장병, 사고, 고혈압성질환의 순이다.

주요사인의 추이를 보면 과거에 위세를 떨치던 전염성질환(결핵포함)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비전염성의 만성퇴행성질환인 소위 "成人病"인 순환기질환과 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간 제4위를 차지하던 만성간장병은 이제 정체되는 듯 하거나 아직도 그 사망수준은 높은 실정이다.

또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여 제3위의 사인에, 전체사망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A